

# 해양·근현대문화 연결하는 '부산세관 옛청사' 복원 시동

부산시-관세청, 복원·활용 '맞손' 전시관·다목적 공간으로 조성 국비 159억 투입... 2027년 개관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과 고관호 관세청장이 지난 7일 부산세관 옛 청사 복원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부산시와 관세청은 지난 7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부산세관 옛청사 복원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고관호 관세청장이 참석했다. 부산세관 옛청사는 1911년에 준공돼 부산항의 역사와 함께 국제무역도시로서 부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이었으나, 1979년 부산대교 진입로 개설 공사에 따라 철거됐다. 이전부터 옛청사 복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아 '해양 문화와 근현대 문화를 연결하는 대표 시설로 조성하자'는 시민 목소리가 커지고, 복합 재개발을 통해 관세청에서 복원할 부지를 확보하는 등 지진이 복원의 적기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던 부산세관 옛청사의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부산의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써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상호 공동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가진 진정성 있는 복원과 위상 확립을 위한 조사 연구 ▲복원 후 시민친화적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주변 지역의 근현대 문화유산과 연계한 다양

한 콘텐츠 개발 및 교류 활성화 ▲그 밖에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복원될 부산세관 옛청사는 부산항의 역사와 관세청의 역할을 조망하는 전시관으로 활용되며, 다양한 문화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할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비 159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약 1000㎡,

지상 2층, 침탑부 4층 규모로 복원하며 2026년 12월 준공해 2027년 3월쯤 개관 예정이다.

건물 자체가 지닌 멋과 더불어 바다와 어울리는 정취를 통해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로 조성한다. 오페라하우스, 부산항 1부두, 부산근현대역사관, 임시수도기념관 등 주요 명소들과 자연스럽게 연계해 부산의 관광 시너지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로 들어오는 첫 관문인 부산항을 지키는 관세청과 협력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다. 부산세관 옛청사 복원은 부산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부산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산이 대역력적인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관세청과 꾸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광주시 창업 정보·정책 등 쉽게 찾아요

광주시가 클릭 한번으로 지역의 창업정보와 지원사업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광주스타트업플랫폼'을 개설했다.

광주시는 예비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관련 정보와 정책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광주스타트업플랫폼'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스타트업플랫폼'은 창업지원 정보를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비롯해 광주지역 창업 관계기관 정보가 수록됐다. /광주=양수영 기자

### 영양군 고독사 위험군 선제 발굴·지원

영양군은 최근 1인 가구와 중장년 및 노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위험군의 선제적인 발굴과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인적 안전망인 영양군 행복기동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장, 부녀회장 등으로 구성되어 이웃들이 위기가구를 발견·신고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며, 지난 4일 경북도 출범식에 참여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전남도, 中企 10개社 수출 다변화 도모 獨·네덜란드서 310만 달러 수출 성과

식품 7개社, 화장품 3개社 참여 獨, 조미김 제품 등 수출업무 협약 네덜란드, 전복·오징어 제품 계약

전라남도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 지역본부와 함께 수출 유망기업 수출 다변화를 위해 독일과 네덜란드에 10개 기업을 시장개척단으로 파견, 110만 달러 현장 계약과 200만 달러 수출 업무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지난 1일까지 6일간 진행했으며 식품 7개 기업과 화장품 3개 기업이 참여했다.

파견 기업은 구매자 발굴 가능성, 수출준비도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상담회 개최 한 달 전 잠재 구매자에게 기업 제품 제공과 매칭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하면서 수출 가능성을 높였다.

상담회에선 전남지역 중소기업 10개와 현지 구매자 36개 기업 등 총 46개 기업이 참가해 1대1 상담으로 진행, 110만 달러 현장 수출계약과 200

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상담회에선 해산이 조미김 제품 40만 달러, 주식회사 바다명가가 김 제품 20만 달러, ㈜아라움이 크리스피 오징어 제품 20만 달러, ㈜해청정이 해초면 10만 달러 등 6개 기업이 110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상담회에선 완도삼영어조합법인이 전복 110만 달러 규모 수출 계약을 했으며, ㈜아라움이 크리스피 오징어 제품 40만 달러, 해산이 조미김 제품 20만 달러, 주식회사바다명가가 김 제품 20만 달러 등 4개 기업이 90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이밖에 유한회사 완도세게로237은 모듬해초, 주식회사 해농은 김 제품을 경향산업 유한회사는 보온재를 출품해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남해안 굴, 수출 1억 달러 '스타품목' 육성

경남도, 굴 까기 작업장 시설 개선

경남도가 미국 FDA 인증 청정해역에서 생산한 남해안 굴의 경남 최초 수출 1억 달러 스타품목 육성에 나선다.

경남도는 '2030 경남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 일환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굴 공급을 위해 올해 굴 까기 작업장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경남의 굴 생산량은 25만t으로 전국 생산량 31만t의 78%, 수출은 7819만달러로 전국 수출액 8598만달러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대표 수산물이지만 대다수 굴 까기 작업장은 15년 이상 노후되어 시설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올해 국비 신규사업



굴까기 작업장.

'정정어장 굴 전라품종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96억 원을 확보해 굴 까기 작업장 시설개선 20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총 130개소까지 현대화할 계획이다.

굴 까기 작업장의 시설개선 시 신청은 6억 원, 개·보수는 2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시·군 수요에 따라 통영시에 62억 원, 거제시에 34억 원을 배정했다. /창녕(경남)=이도식 기자

## 대구경영자회 회장단, 저출생 극복 성금

(주)동원약품 등 6000만원 전달

대구의 기업 경영자들이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대구경영자회 회장단은 지난 7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 극복 성금 6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북도에 전달했다.

이날 대구경영자회 회장단 기업들인 (주)동원약품(회장 현수환), 우성철강(회장 김영만), 대영전자(회장 백서재)는 각 2000만원씩 기부했다.

백서재 대구경영자회 회장은 "전국

최초로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과 전쟁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경영자회 회장단분들의 성금 기부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저출생 극복 성금모금 캠페인' 주관 단체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모금회에 따르면 개인, 각급 단체, 기업인 등이 지난 3월 모금을 시작한 이래 9일 현재 29억원이 넘는 성금이 접수됐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 산청군, 행정·문화 갖춘 복합센터 준공

산엔청 건강누리센터

산청군 최초로 행정 기능과 문화 기능을 갖춘 행정문화복합센터가 들어섰다.

지난 7일 산청군은 산청읍에서 '산엔청 건강누리센터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이승화 산청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기관·단체장,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엔청 건강누리센터는 산청군 최초로 행정 기능과 문화 기능을 한 공간에 담아낸 행정문화복합센터다.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하나로 총 78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2년 착공, 이달 완공했다.

모두 3층 규모로 1층(619.31㎡)은 산청읍사무소 신청사로 민원 해결 등 행

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2층(714.83㎡)은 주민들을 위한 동아리실 및 프로그램실이 조성돼 평생학습과 동아리 활동을 시행한다. 3층(589.28㎡)은 카페와 대강당 등 주민들이 음료와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구성됐다.

산청군은 산엔청 건강누리센터 건립과 함께 남부생활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시천면과 단성면에 주민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신등면에서는 지역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화 군수는 "산엔청 건강누리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쓰겠다"며 고 말했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 경남도 불합리한 도로·접도구역 정비

경남도는 7일 도민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내 지방도, 국지도, 위임국도 노선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4개 노선, 63개소 23.21km를 정비한 데 이어 6월 현재, 11개 노선, 14개소 28.42km를 정비하는 등 총 35개 노선, 77개소 51.63km를 정비했다.

접도구역 지정은 도로법 따라 도로가 완공되면 도로구역을 확정하고, 도로 파손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경계선에게 5m를 지정하고 있으나, 일부 경우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와 접도구역이 다수 있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로 및 접도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창녕군 인근 KTX역서 귀농귀촌 홍보

창녕군이 창녕으로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인근 도시의 KTX 역으로 찾아가 홍보 활동을 펼친다.

군은 오는 12일과 19일, 26일에 각각 창원 중앙역, 마산역, 부산 KTX 역에서 '찾아가는 창녕군 귀농귀촌 센터'를 운영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녕군과 해당 KTX 역들의 협력으로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군 귀농귀촌 센터를 역으로 옮겨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창녕(경남)=이도식 기자